



LIFE COACHING AND DIVINE APPOINTMENT

As we increase in our life coaching capacity, God entrusts us with precious opportunities to coach diverse walks of life in multifaceted seasons of faith. The frequency of experiencing divine appointments in our life coaching ministry is accelerating. We encountered one such divine appointment recently as we coached a missionary candidate couple. Read their reflections below.

In Christ,

Daniel and Ellen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Our Lord is exceedingly good and faithful.

지난주에 오션교사님 부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 만남에 대해 무엇을 나누어야 할 지 무엇을 말씀해 주실지 막연했지만 그렇기에 더욱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실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함께 해 주셨고 저희들이 항상 갈급하면서도 헤쳐 나갈 방법을 모르고 있던 지금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파헤쳐주셨습니다.

Last week we had an opportunity to meet with Daniel and Ellen. My wife and I were unclear about what to share at this meeting. All the more, we expected the Lord to show up and engage with us. Indeed the Lord graced us with his presence and touched the most essential and needful places in our lives, where we were struggling the most.

저희들이 선교사로 섬기기를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이었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도 엄두가 나지 않던 부분을 우리 주님은 오션교사님 부부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저희를 만나게 하심으로 빛 아래 드러나게 하시고 밝혀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정말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손길에 황송할 뿐입니다.

This issue formed the most challenging obstacle in our path to becoming missionaries. We didn't even know where to begin to address this issue. But the Lord sent Daniel and Ellen to us, led us into the light, and began the work of healing. What a wonderful Father we have. He truly loves us with his great love!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아이들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저의 지난 삶에서 예수님 몰랐을 때 나의 욕심과 나의 기쁨을 위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짐을 지어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상처와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은 너무나 큰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사과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 또한 너무 간지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잘못된 일들에 대해 용서를 빌고 저의 마음은 많이 가벼워졌을지라도 아이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관계가 바로 서는 과정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고 아직도 언제 그날이 올 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This biggest issue in our life was our relationship with our children. Before, when I didn't know Jesus, my ambitious and selfish heart wounded them so much. These hurts became so burdensome to them. Even now they are not free from these hurts and darkness. My heart is so grieved. Giving an apology was too difficult. Saying thanks and expressing my love was also not easy. Even if I have confessed my wrongful deeds and asked for forgiveness from them, it has taken a long time for their wounded hearts to be healed and for our relationship to be restored.

그런 아이들과의 어긋난 관계가 가장 풀어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선교사님을 통해 주님이 주신 답은 저희 부부관계부터 온전히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관계로 돌아가는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주님 잘 섬기고 아이들 잘 돌보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칭찬까지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잘 사는 것이라 생각했던 저희들 사이에 이제까지 서로 참고 서로 상처주고 서로 무시하며 살았던 참 많은 쓴 뿌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야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대로 그냥 다른데 더 신경 쓰며 살아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습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최악의 모습이고 더러운 모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진정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짝져주시며 심히 기뻐하신 그런 모습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선 풀어야 할 숙제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과의 쓰라린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도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아주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곳에서도 저희들의 하나 됨으로 우리들의 이웃에게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So we have been struggling how to restore this broken relationship with our children. The Lord revealed to us that the most important step in solving this issue is to bring healing to my relationship with my wife and to return to the original design of God-given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We thought we were doing a decent job of living if we serve the Lord, take care of our children, live responsibly, and even are commended by our neighbors. But deep in our hearts grew these bitter roots that stemmed from selfishness, neglect, and disdain. We even justified to ourselves that these relational problems are all too common to everyone. However, the Lord revealed to us how sinful this attitude is to God. We realize now that God desires for us to experience holistic intimacy and unity (spiritually, emotionally, and physically), as God intended for Adam and Eve. As we do that, our children will also experience healing from their wounds. We can be the fragrance of Jesus right where we live and also on the mission field later when we go.

우리 주님은 저희들이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하십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삶의 모습에서 전인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며 의와 사랑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십니다. 그 분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몰라도 그 분이 흡족히 받으시는 예배의 태도는 온전함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완전한 조화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주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직도 많은 그러나 이제는 빛 아래 드러난 어둠의 벌레들을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The Lord wants us to worship him with wholehearted devotion in all aspects of our life. He is holy, pure, and perfect in harmony between righteousness and love. Maybe we can worship him in all different forms, but the true worship that he desires is an integrated life as worship. Not a fragmented life. We want to walk as children of light and expose the deeds of darkness, so that we can experience the full joy of restored relationships in our life.